

1. 2007년 주요 전자업체의 부품 구매 계획 설명회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구로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대·중소기업 협력확대의 일환으로 본회가 마련한 전자부품 구매계획 설명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전자부품업체 140여개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인켈·삼보컴퓨터 등 주요 5개 전자업체의 전자제품 생산 목표와 전자부품 구매 계획이 발표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자원부가 올해 디지털산업 전망과 정책지원 방향 등을 제시했다.

올해 국내 주요 5개 전자업체의 부품구매량은 총 37조539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3.2%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로는 휴대폰용 부품이 16조32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CD·PDP 패널용 부품이 7조798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모니터를 포함한 TV용 부품 구매 계획은 3조4405억원, HDD용이 2조7508억원 등이다.

전년에 비해 구매가 늘어날 품목으로는 셋톱박스용 부품이 66.4%의 성장률로 가장 높았다. HDD용(36.9%)과 프린터(23.1%)용 부품 등도 고성장이 예상

되는 분야다. 반면 TV용 부품 구매는 22.0% 줄어들고 VCR(-15.5%), DVD(-68.6%), 오디오(-10.0%), 청소기·전자레인지(-7.8%) 용 부품 구매도 전년보다 감소할 분야로 꼽혔다. 휴대폰용(7.2%)과 에어컨용(6.0%), PC용(1.9%) 등도 소폭 구매 확대가 예상된다.

삼성 23조원, LG 13조원 부품 구매=삼성전자는 올해 전년대비 2.5% 증가한 23조3263억원의 전자부품 구매 계획을 밝혔다. LG전자는 4.6% 증가한 12조9568억원의 부품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단순 부품구매 증가율에서는 LG전자가 높지만 절대 구매 규모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월등하다. 삼성전자·LG전자 양사는 종합 전자산업 대표 업체답게 TV와 모니터·휴대폰·냉장고 등은 물론 셋톱박스·광기록재생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대우일렉은 1조302억원의 구매계획으로 전년에 비해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일렉의 부품구매 대상은 TV·DVD·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 등 백색 가전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삼보컴퓨터는 전년대비 15.0% 늘어난 1585억원의 공격적인 부품구매 계획을 밝혔다. 이는 모니터·프린터·복합기 등 완제품을 제외한 PC에서의 수요만 잡은 것이다. 오디오·통신중계기 중심의 이트로닉스는 6.9% 늘어난 673억원의 전자부품 구매계획을 내놨다.

본회 김현기 차장은 “5개사 모두 전년대비 많은 전자부품 구매 계획을 밝힌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며 “획기적인 수요 확대는 없지만 대기업의 안정적인 전자부품 구매 확대는 중견·중소 부품업체의 사업 안정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산 부품의 구매비중은 65%=주요 5개사는 올해 전자부품 도입 목표 가운데 65.0%는 국내에서, 35.0%는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이 높을수록 국내 2, 3차 협력업체의 공동수혜를 예상할 수 있다. 본회는 지난해 국내 부품조달 비중은 61.5%였다고 설명했다. 분야로 임베디드 전문 교육기관인 MDS테크놀로지(주)에서 맡아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2. 상해전자전, 5개국 전자전 주최자 계약 체결



본회는 중국전자제품공사, 일본전자전협회, 대만전기전자제조자협회, 홍콩무역발전국과 공동으로 상해아시아전자전(AEES)을 개최기로 합의하고 계약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상해아시아전자전(AEES, Asia Electronics Show in Shanghai)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상해국제회의중심(SICC, Shanghai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다. AEES는 올해로 4

회째를 맞는다. AEES는 CES 등 세계적인 가전전시회에 비하면 아직 초라한 규모다. 미국 CES의 전시 규모가 16만㎡ 규모인데 반해 AEES는 9000㎡ 수준이다.

AEES는 지난해 5개국에서 249개사가 참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6개사가 103개 부스를 설치, 1억35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맺기도 했다.

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아시아가 가전 및 IT산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가전전시회가 없는 실정이다”며 “AEES는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꾸준한 홍보와 투자로 세계적인 가전 전시회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산업진흥회는 한국에서 KES를 여는등 전시회를 통한 가전산업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KES 및 AEES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다.

3. 전자산업진흥회,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 현장교육

본회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이공계 교육 간의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미취업 상태인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교육과 기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인력수요가 가장 큰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로 임베디드 전문교육기관인 MDS테크놀로지(주)에서 맡아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 교육과정은 총 3개 과정, 6개월 코스다. 3개 과정은 단체교육, 전문연수, 기업연수로 2개월씩의 과정으

로 나뉜다.

특히 기업연수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0명의 기업연수생이 100%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gokea.org), MDS테크놀로지(주) MDS아카데미(www.mdstec.com)를 참조하면 된다.

4. i-Pac(특허지원센터)를 통한 「특허검색방법 교육」안내



본회 특허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선행기술 조사 및 국제특허분쟁 사전 예방을 위하여 특허검색ID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특허검색교육을 실시이후, 특허검색교육의 수요와 관심증가로 특허검색교육을 실시코자 한다.

보다 원활한 특허정보 검색활용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본회 특허지원센터로 접수하길 바란다. 관리비용 시스템, 집단전화국 설치 등 최첨단 빌딩으로 설계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였다.

- 1차 교육 : 2007년 3월 27일(화) 14:00 ~ 17:00
- 2차 교육 : 2007년 3월 30일(금) 14:00 ~ 17:00
- 장 소 : 전자산업진흥회관 11층 대회의실
- 참가신청
- 특허지원센터 홈페이지(www.ipac.or.kr 세미나 교육신청)에서 신청
- e-Mail : les@gokea.org
- 팩 스 : 02-565-3744
- 문의처
- 담당자 : 특허지원센터 최성식 과장, 정완숙
- 이메일 : star2@gokea.org, les@gokea.org
- 전 화 : 02-553-0941(내선 415, 416)

5. DMC 전자회관 임대안내

전자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전자회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4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12층 지하5층 연면적 6천평 규모의 전자회관은, 서울 시에서 동북아 IT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있는 상암동 Digital Media City 내에서도 중심부에 건립되며 준공 후에는 IT/벤처업체는 물론, 전자부품연구원의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R&D센터를 비롯한 각종 협회 및 유관단체가 동반 입주하여 디지털 전자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DMC 전자회관은 층별 공조시스템, 최저 관리비용 시스템, 집단전화국 설치 등 최첨단 빌딩으로 설계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였다.

- 임대 및 입주 문의
- 기획총무팀 김성수
- e-mail : novum@gokea.org
- 전화 : 02-553-0941(내선 211)
- 팩스 : 02-555-6195